



21일 오전 광주서구광주시청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가 '윤몽현 GGM 대표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 GGM 1960억 대출 돌려막아 급한 불 껐는데, 노조 반발 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최근 1900억원 규모의 대출금 대한대출 이른바 '돌려막기'를 놓고 노사가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올들어 노조의 간헐적인 파업이 지속되면서 채권은행단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노사상생형 국내 첫 일자리 모델'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회사 안팎이 파란 잘 날 없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GGM 노사에 따르면 공장 설립 당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을 놓고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754억원이 투입돼 합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공장은 투자금 중 2700억원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8개 금융사가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상환 조건으로 빌려줬다. GGM은 채권은행단에 2022년 9월부터 분기별로 70억원씩 갚아왔고 지난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196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사 갈등은 지난 1월 노조가 첫 파업에 이은 간헐적인 파업을 벌이면서 채권단이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

### 대한대출 놓고 노사 또 격돌... 회사 안팎 '시끌시끌'

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생 협정서를 체결했고 은행 채권단과 2700억원 규모 대출 약정서에도 상생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GGM 노사 갈등과 노조 파업 분위가 고조 등으로 대출 약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회사 측에 보냈다.

이어 우리은행도 올 1월 파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 확인을, 산업은행은 지난 5월 GGM 노사 관계 동향을 각각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세 차례 공문 이후에도 GGM은 채권단으로부터 10여 차례 노무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는 등 대출금 상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GGM 경영진은 기존 채권은행단이 대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기상환 절차를 추진한다.

GGM 관계자는 "노무상황이 더 악화되

면 8개 채권은행이 12월에 채무 연장을 안 해줄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을 제외한 6개 은행에 2000억원의 대출 여부를 타진했는데 신한은행만이 유일하게 답을 줘 1960억을 대출 받아 나머지 7개 은행에 상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GGM은 7개 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 2억원을 물었다.

GGM은 우여곡절 끝에 2000억원 가까운 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해 대한대출을 통해 급한 불을 껐지만, 노조는 다른 주장을 펼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사측은 경영설명회에서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구해 1960억 원을 6개월 앞당겨 상환했고, 패널티로 2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산업은행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대출 조기상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지난 2월 대출금의 자발적인 조기상환 절차 및 수수료 등을 문의 받아 채권단을 대리해 해당 정보를 회사에 안내했다. 이후 6월 상업적인 판단 하에 타행으로부터 기존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신규 차입해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낮은 금리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안 대출을 목적으로 노조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노동 3권 부정과 노조에 대한 공갈·협박을 일삼는 것이다"라며 "광주시는 국책은행까지 내세워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의 행태를 바로잡고, 즉각 윤몽현 대표 해임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르면 오늘 중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직원들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GM 노사는 노동 3권, 연봉, 기여금, 2교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 전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8.1%

전남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8%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쿠폰 소비진작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8.1%이다. 지급 방식 별로는 신용·체크 카드 45.5%, 지류(지역사랑 상품권) 32.1% 등이다.

지급률이 100%에 가까워진 만큼 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10일간 소비쿠폰 소비진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독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도민

이 체감하는 소비 분위기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전남도는 리플렛·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과 도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총동원해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진작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 정착, 도민 생활 안정 등 3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자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선호 기자

## 고용부, 지역고용 현안대응 TF 가동

제조업 취업자수 13개월째 감소... 건설업도 15개월째  
 홈플러스 9개 사·도서 폐점... 광양·포항 철강업도 위기  
 "지역 일자리는 국가성장 토대... 신속하게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가 철강업, 석유화학산업 등 주요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자 지역고용 현안대응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만1000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63.4%로 역대 7월 통계 중 최고를 기록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각각 13개월과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더해 홈플러스의 9개 사·도 15개 임차매장이 폐점 계획을 발표, 여수·시·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결정 등 지역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철강산

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울산과 충남 서산,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일자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산과 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역 고용둔화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해 본부와 8개 주요 지방고용관서에 고용 현안대응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고용안정,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역 고용은 지역 존립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지방균형성장장과 국가 성장의 중요한 토대"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지역고용 현안대응TF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